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인터넷신문 344-21 완주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빌 6번지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음 12월 21일) 제17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전격 만남

양 기관 간 발생한 갈등 풀리나?

송 지사 "전북 이익 없다면 반대입장 표명 가능" 이 청장 "송 지사가 한 말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송하진 도지사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어색한 만남이 17일 전북도청에서 이뤄졌다. 이날 둘의 만남은 이병국 청장이 송 지사를 전격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전북도와 개발청간 갈등은 지난 연말 이미 불이 지펴졌다. 송하진 지사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향해 퇴진 촉구의 직격탄을 날리면서다.

송 지사는 지난 11월 이 청장의 매너리즘을 타박하며 "생각의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사는 이날 이 청장을 만나 자리에서 "행정은 제도권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역에서 갈망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노력하는 모습을 지역이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현행제도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의 민심에 반하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식은 새만금이 잘돼야 전북이 잘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시작은 국가가 시작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전북도민이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인 이익과 소외된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전북의 이익이 없다면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할 수 있다"고 이 청

장을 압박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은 지역민과 공감해야 성공을 하게되는 것임으로 사업 추진 시 전북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장은 "송하진 도지사의 말씀을 잘 들었으며, 앞으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협회 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행 국가 계약법상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만금 사업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의 정비, 자재,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의 모든 관계기관·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특검 사무실을 향해 문하·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농촌 결혼이민여성, 농업자금 지원해야”

농진청 “리더역량 강화 위해 리더교육도 필요”

농촌지역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농업자금 지원’을, 리더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진청농청은 최근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리더역량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9도 430명을 대

으로 마을 또는 각종 단체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리더형, 일반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준리더형, 그 밖의 예비리더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결혼이민여성들은 ‘여성농업인 성장을 위한 우수사항’으로 농업자금 지원(33.8%)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업농기계 기술 교육(17.5%), 토지시

설 지원(17.1%), 판매·유통 교육(12.5%), 농산물 가공 교육(8.0%), 인터넷 교육(6.4%) 등을 꼽았다.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리더 교육(52.1%), 리더기술 매뉴얼(20.1%), 네트워크 구축(10.3%), 상담실 운영(7.2%) 등 순이었다.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언어소통(38.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 부족(16.5%), 회원 간 의견충돌(13.8%), 리더십 부족(11.2%), 전문성·정보 부족(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결혼이민여성들의 대인관계, 중재 및 협상력, 전문성 및 주도성, 조직력 및 문제대응력 등을 평가한 리더역량 지수는 리더형은 77.5점, 준리더형은 70.9점, 예비리더형은 60.9점으로 나왔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매일 INDEX

16면 - 강현신 부안경찰서장 취임 1년

“깨끗한 정치·새로운 정치”

바른정당 도당 창당대회 도당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가 17일 전주 오벨리스웨딩홀에서 열린 가운데 초대 도당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호남의 중심,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창당대회에는 정병국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 의장, 김부성·유성민 고문 등 지도부와 당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3면>

바른정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친박(친박근혜)을 비난하며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강조했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친박과 친문 등 특정 세력의 패권을 배척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제 바른정당은 두번다시 최순실과 정유라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전북지역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토론크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속보〉권성동 “생각보다 탄핵심판 절차 빨리 진행될 가능성 높다”

‘삼성 등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인정’·최순실 ‘부인’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놓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아 주목된다.

장씨는 삼성과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모두 자백한 반면,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중(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삼성·GKL 후원금 관련”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재센터 자금 3억원 횡령 관련)업무소홀령 혐의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과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자백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자, 장씨도 직접 “맞다”고 답했다.

반면 최씨 측은 삼성과 GKL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장씨와 스케이 트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 재능 기부와 동계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도와준 적이 있다”며 “실제 영재센터 운영진을 보면 스키 선수 출신 박재혁씨, 스케이 트 선수 출신 이규혁씨, 이진성씨, 제강성렬씨 등 스포츠스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설립 절차를 조연해주고 도와



장시호 최순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등에게)기업 후원을 알아봐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삼성이나 GKL을 특정해서 한 적은 없다”며 “장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뉴스

설 명절 FIFA U-20 홍보 집중

전주시가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알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대회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홍보광고물을 제작, 고속도로 나들목과 한옥마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에서는 지난해 구성된 FIFA U-20 월드컵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90여명이 FIFA U-20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인 ‘차오르미’와 함께 ▲전통놀이 미니게임 ▲축구공차기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회를 알리게 된다. /김영재 기자

설명절 푸러미 상품 정음 '외갓집땃발' 푸러미

좋은 것만 모아 담아 가격도 내리고 려정도 내리고

- 미국 5set 29,000
- 한우구리500g 맥국떡(400g×2) 19,000
- 잡곡 5set 15,000
- 선혜정향과 (200g×2) 대봉꽃감 10과 20,000
- 찰보리 1kg, 찰용미500g 찰녹미 500g 유기농찰현미 500g 20,000

●푸러미 상품 주문 예약 : 1월 22일까지, 1월 23일 일괄 배송

단풍미인 쇼핑몰 **설맞이 기념! 할인대잔치**

명절상품권

- 쌀/잡곡류 최대 33%할인
- 한우/축산 최대 25%할인
- 진장/가공 최대 44%할인
- 과일/채소 최대 29%할인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에 100% 지원(정음사생),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블랙데이

오늘 하루를 잡아라 날마다 터지는 할인데이!

다양한 상품 구성, 최대 40% 할인 12개업체 16개 상품

1월13일 금

- 내장산한과 귀리유과 39%↓ 11,000원 50만원
- 햇빛줄기는 마음 참죽(50포) 40%↓ 30,000원 100만원

1월20일 금

- 강정(한약식용) 고향이 부각 40%↓ 32,400원 50만원
- 두산인삼(농림부) 아카시아꿀(2.4kg) 30%↓ 38,500원 20만원